

페루 광산업 부문에서 중국 국유기업의 행태와 전략: 셔우강, 치날코, MMG 사례 비교*

강정원**

단독/신한대학교 교양학부

Kang, Jungwon (2016), "The Corporate Behaviors of the Chinese SOEs in the Peruvian Mining Industry: A Comparative Analysis of Shougang, Chinalco, and MMG"

ABSTRACT

In the last decade, China has evolved into one of the most promising economic and political partners in Latin America. This sudden and unprecedented "rise" of China has provoked expectations as well as anxieties in the hemisphere. In line with the increasingly visible presence of China, the subject of Sino-Latin American relationship has gained greater academic prominence. As a part of such academic endeavors, this article explores the dynamics and complexity of Chinese resource-driven investment by comparing the corporate behaviors of three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Peruvian mining sector. By analyzing the corporate behaviors of these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this article critically questions the validity of the so-called "China model" in comprehending the nature of Chinese growing engagement in Latin America.

Key Words: China, Peru, mining industry, resource-based investment, Chinese Latin American Relationship

* 본 논문은 2016년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Jungwon Kang is assistant professor of the Faculty of Liberal Arts at Shinhan University, Korea (Email: moises@daum.net).

서 문

2004년 후진타오 중국 전 주석의 라틴아메리카 순방은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의 급진적 도약을 예고했다. 이 방문을 계기로 1970년대 시작된 국교수교 이후 통상적으로 개별 정치적 사안에서의 제한적 협력에 머물러 있던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는 실용주의에 기반을 둔 포괄적 경제 교류의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Dosch and Goodman 2012, 6-7). 2001년 발표된 중국 10개년 개발계획의 핵심 기조를 차지했던 ‘국제화’(走出去战略, Go Out) 정책과 중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으로 추동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투자와 무역 증가는 즉각적인 지표상의 변화로 반영되었다. 단적으로 2000년 130억 달러 수준이었던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무역 규모는 2010년 1,800억 달러로 약 14배로 급증했다. 중국은 또한 2010년 이후 지역 내 세 번째 규모의 FDI 원천 국가로 자리매김했으며, 2012년부터는 미국에 이어 라틴아메리카 수출품의 최대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Kotschwar et al. 2012, 2; Pahuamba et al. 2015).¹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의 부상은 OECD 회원국들에 대한 지역의 과도한 의존도(Kotschwar et al. 2012)를 낮추고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는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 시장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간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교류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연구들은 중국이라는 변수가 라틴아메리카에 경제의 양적 성장을 넘어서는 질적 개선과 더 나아가 장기적인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의구심을 보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은 주로 중국의 대외정책, 무역구조, 기업관행이라는 세 가지 측면과 관련해 제기되었다. 먼저 대외정책과 관련해서 논란은 주로 중국의 ‘불간섭’주의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다. 불간섭주의는 국제정치 무대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립각에 의해 재편되는 데 맞서 비서구권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열렸던 제 1차 1955년 반동회의(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발표된 평화 10원칙 가운데 하나로 이후 중국 공산당의 대외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원칙으로

1 유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는 2012년 보고서에서 중국이 5년 내에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의 최대 경제 교역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osales and Kuwayama 2012). 2015년 3월 기준 중국은 이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을 제치고 최대규모의 교역국으로 집계되었다(CNN Money, 2015년 3월 4일).

자리잡아왔다.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에서 중국의 불간섭주의는 초기의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라는 이념의 틀을 버리고 대신 탈정치화된 실용주의라는 형태로 적용되었고(González-Vicente 2015), 이는 특히 21세기 남아메리카 전역을 휩쓸었던 좌파성향 정권들과 중국의 관계 정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 자본과 국제 금융기관에 적대적인 이 정권들은 정치개혁이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개입에 호의적이었고, 그 결과 중국의 차관과 투자를 대폭 수용하게 된다.² 중국의 내정 불간섭주의, 그리고 남아메리카 좌파 정권들에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비판은 이 정권들에 비판적이었던 미국 워싱턴 재계와 언론에서 주로 제기되었는데, 중국의 부상을 미국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 시각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와 부패청산을 위한 미국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방관을 비난하는 논조로 전개되었다(Stier 2012).³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라틴아메리카와 중국의 관계는 상호호혜적인 경제 협력이라는 틀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중국은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의도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Jiang 2006). 그렇지만 미국의 패권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더라도 곤살레스-비센테(2015; 2011, 82)는 중국의 불간섭주의에 내재된 탈정치주의가 실제로 탈정치적(또는 비정치적) 효과를 갖게 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중국과의 협력이 라틴아메리카의 기존 정치 세력의 기득권 강화와 정권 연장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지역 내의 논란은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교역의 불균등성과 관련하여 전개되었다. 두 지역 간 교역 규모는 채굴산업, 건설업,

2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정권은 2005년부터 2011년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총 63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받았다. 같은 시기 에콰도르가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에서 공여 받은 지원액은 26억 달러였다. 2005년부터 2012년 중국은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87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했고, 이 중 2010년 제공된 370억 달러는 같은 해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의 차관의 합계보다 많은 규모였다(González-Vicente 2015, 215).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에서도 중국과의 재정협력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회사인 PDVSA에 대한 중국의 차관 규모는 2012년에는 380억 달러에 달했다(González-Vicente 2015, 216).

3 예를 들어 카운슬 오브 더 아메리카스의 부총재인 에릭 판스위스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 평가하며, “우리가 세웠던 시장이 다른 이들에 의해 점령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심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이 시장에서 폭력을 완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민주적 질서를 지지하기 위해 우리 세업자들이 낸 세금으로 수년 간 우리가 힘들어 개척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말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그는 “게다가 이제 미국이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할 때 다른 이들이 그 수확물을 가로채고 있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Stier 2012 재인용).

제조업, 통신 산업 등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교역 불균등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Stier 2012). 구체적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채굴산업이 25퍼센트, 농업이 29퍼센트, 제조업이 29퍼센트를 차지한 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그 비중은 각각 56퍼센트, 31퍼센트, 12퍼센트로 집계되어 일차산품수출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여전히 공산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비중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85퍼센트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9퍼센트를 차지했다(Ray et al. 2015, 5). 중국으로의 수출이 천연자원 생산품에 집중됨에 따라 교역국 역시 일부 국가들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비슷한 시기 중국으로의 수출의 80퍼센트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다섯 개 국가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Gallagher 2010, 2; Pahuamba et al. 2015, 38-39). 천연자원집중도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부문에서도 확인되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추진된 중국 FDI의 80퍼센트가 채굴산업에, 그리고 이 가운데 70퍼센트가 석유와 가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Ray et al. 2015, 6). 중국과의 이 같은 교역불균등성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대외경제취약성과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수입 의존도 심화로 인한 산업 전반에서의 경쟁력 상실 등으로 나타나 구조적 의존성, 즉 네덜란드 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로 나타났다(Gallagher and Porzecanski 2010; Jenkins et al. 2008).⁴ 또한 원자재 판매에 따른 자본 유입 증가와 이로 인한 상품재 가격의 상승이 원화고평가와 재정지출증대를 가져오게 되는 비효율적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Wise and Quiliconi 2007; Wise and Zhang 2014).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의 문화와 행태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는 주로 채굴산업 부문 다국적기업의 관행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단체나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천연자원 위주의 FDI를 추진한 결과 현재 중국계 기업들은 대부분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자원의존성이 매우 높은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4 케빈 깰러와 로베르토 포르체칸스키는 중국 제조업이 라틴아메리카 제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 위협”과 “부분적 위협”으로 분류하고, 2009년 기준 지역 내 수출제조품의 92퍼센트가 이러한 위협권 내에 든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전방위적 위협에 노출된 국가들로 멕시코와 카리브 국가들을 들었다(Gallagher and Porzecanski 2010).

그리고 이 국가들은 지난 십여 년 간 자원개발로 인한 지역분쟁이 매우 격화된 지역들이기도 했다. 이들 중국계 기업들이 주도하는 자원개발사업이 초래한 지역분쟁들의 주요 갈등 요인들은 토지소유권 분쟁, 환경오염, 광산세 배분, 지역개발사업의 적합성 등으로 내용 면에서는 기존의 다국적 기업들의 지역분쟁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⁵ 하지만 기존의 다국적 기업들과는 구분되는 중국계 기업들의 독특한 특징들이 분쟁을 촉발시키거나 심화시킨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단적으로 중국계 기업들이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EITI)⁶, ‘국제 광업 금속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 이하 ICMM)⁷ 등 채굴산업 부문 기업 관행에 관한 국제 기준을 따르는 대신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고집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 불투명성 또는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전제로 하는 대규모 차관 제공 그리고 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권 박탈 등이 그 사례이다. 그 외에도 중국 본토나 아프리카 등지 중국계 광산회사들에서 발생했던 사고나 부정부패 또는 독재정권과의 유착 등의 문제들⁸, 중국의 공산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중국 시민사회의 취약성, 값싼 중국산 제품의 보급 등도 중국기업의 후진성과 비민주성이라는 인식 확산에 일조했다(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과 관련해서는 Armony(2012),

5 중국 자본에 의해 추진된 채굴 사업 가운데 지역 주민과 시민 단체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체되었던 사례들로는 2012년 에콰도르에 대한 광산 분쟁(에콰도르), 2014년 미라도르 광산 분쟁(에콰도르), 2014년 리오블랑코 광산 분쟁(페루), 2015년 밤바스 광산 분쟁(페루) 등을 들 수 있다.

6 EITI는 석유, 가스, 광산업 부문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경영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된 다자간 국제기구이다. 2002년 지속가능개발 정상회담에서 당시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의 주창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총 48개국이 회원국(페루를 포함해 29개국이 준수국가로 분류되며 17개국은 후보 국가로 분류됨)으로 등록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EITI가 제시하는 산업수행기준을 참고로 하여 매년 채굴산업 부문의 수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EITI의 자체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회원국들의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7 ICMM은 2001년 광업과 금속업 부문에서 지속가능개발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총 23개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는 MMG가 유일하게 가입되어 있다. ICMM은 1998년 지구정상회의에서 9개의 대형 광산 회사들이 주도하여 결성한 ‘글로벌광업 이니셔티브’(GMI)가 제안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수행했던 광업과 지속가능개발(MMSD) 연구사업의 결과로 결성되었다. 광업과 금속업이 급속도로 세계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개발이라는 취지로 민간기업들이 주도하여 결성한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으며, 회원기업들은 총 10개의 준수 사항을 따를 것이 요구된다.

8 2005년 잠비아 BGRIMM 광산 사고로 52명의 광부가 사망한 사건, 짐바브웨 무가베 독재정권이나 수단 바시르 독재정권에 대한 중국의 재정적 지원,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광시(廣西)성 상린(上林)현에서 1만 여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불법 채굴을 위해 가나에 이주한 사건, 2013년 잠비아 정부의 중국콜롬석탄광산 채굴권 몰수 등이 대표적이다.

Armony and Velásquez(2015)를 참조하라).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중국계 기업 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과 저항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중국의 부상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를 기회로 볼 것인가 위협으로 볼 것인가라는 단선적 질문에서 벗어나 중국의 부상이 라틴아메리카에 가져올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를 접근하는데 있어 국가 간/체제 간 관계라는 구도가 지배적이며, 이 도식에서 중국은 동질적인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동일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동되는 단일한 행위주체로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지나치게 국가/체제 중심적 접근에 치중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의 유동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단일한 행위주체로 설정하기보다는 상충적이고 때로는 이질적인 행위주체들의 연합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경제교류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는 중국 국유기업들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한 중국 국유기업들은 기업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서구의 자본들과 두드러지는 차별성을 보이는가? 이 중국 국유기업들 사이에서 ‘중국식 기업 경영 모델’이라고 부를 만한 상호간 유사한 행태 유형이 발견되는가? 채굴산업의 경우 사업시행과정에서 극도로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계 기업들은 기존의 다국적 기업들과는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전히 타자화되어 있는 중국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의 역동성과 다변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페루 광산업 부문에 진출한 세 개의 중국 국유기업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비교분석을 위해 투자시기, 투자규모, 그리고 사회적 파급력을 기준으로 셔우강 페루 철광 회사(셔우강 그룹)의 마르코나 광산, 치날코(중국알루미늄공사)의 토로모초 광산, MMG 컨소시엄(중국 오광 그룹)의 라스밤바스 광산을 사례로 설정하였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최근 페루 광산업 부문의 변화와 그 안에서 중국계 기업들의 역할과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세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 사업들의 추진

과정, 사례별 기업들의 사회적 관행, 페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과 해당 기업들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행태와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 투자국의 자원관리체계, 지역공동체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세 사례들을 비교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페루-중국 경제 교류 활성화와 페루 광산업 부문의 변화

페루와 중국의 첫 교류는 약 160년 전 ‘쿨리’(coolie)라고 불리던 중국인 계약 노동자들의 노동이주로 거슬러간다. 페루의 사탕수수 농장과 구아노 섬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1840년대 말부터 약 30년에 걸쳐 총 10만 여명의 중국인들이 이주했고, 이들은 계약이 끝난 후에도 현지 사회에 동화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종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종의 전략을 취하며 페루 사회에 정착했다(Naváz 2016).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페루의 중국인 공동체(barrio chino)는 현재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된 중국인 이민 공동체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19세기 중반부터 유입된 이들 중국인 이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쳐 페루와 중국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지속되게 하는 매개가 되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와 중국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그랬듯이 20세기 전반에 걸쳐 페루와 중국의 관계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전략적 협력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럼에도 페루는 국제무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유엔총회의 1971년 결정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수용하며 중국과의 국교 수립에 앞장서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더 나아가서 1980년대 페루 중남부 안데스 지역을 거점으로 확산되어 페루 영토의 절반 이상을 사실상 무력 점령하기도 했던 센데로 루미노소 게릴라 부대의 이념적 기반이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혁명 사상이었다는 사실도 페루와 중국의 관계에서의 특이점이다.

이처럼 양국 간 인적, 정치적, 문화적 교류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경제 교류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시작된 현상이다. 그 시초가 된 것은 1992년 중국 국유기업 서우강 그룹의 마르코나 철광 투자였다. 서우강 그룹의 투자는 채굴 산업 부문에서 중국이 추진한 최초의 해외직접투자였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끌었다(Kotschwar et al. 2012, 16; Manco and Maldonado 2003,

104). 하지만 셔우강 그룹의 투자가 당시 페루 사회에 갖는 의미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보다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것이었다. 투자가 성사되기 직전인 1990년 집권한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은 지난 10년 이상 페루 사회를 위기로 내몰고 있던 센데로 루미노소 게릴라 부대와와의 내전 및 경제 파탄을 극복할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후지모리 정부는 기존의 무능한 지배 세력들과 단절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정부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미명 하에 1992년 자신의 정권에 대한(보다 정확히는 의회, 사법부, 정당 등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쿠데타를 감행하고, 전면적인 구조 개혁 조치를 감행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민영화와 시장개방경제 확대 및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위한 규제 완화가 제시되었고, 이를 위해 국가적 성장전략산업으로 간주되는 광산업 부문에서의 전면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이 추진되었다.⁹ 그럼에도 내부적 개혁만으로는 내전 종결, 정치안정화 및 경제성장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후지모리 정부의 역량과 의지를 검증하기에 충분치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2년 중국 셔우강 그룹의 마르코나 광산 투자는 대내외적 주목을 끌며, 후지모리 정부의 개혁에 신뢰성과 추진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후 페루와 중국의 관계는 21세기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며 공식적 담론으로 내세운 상호 이익의 확장, 호혜적 협력, 윈윈전략 등의 원칙(Strauss 2012)을 이상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다. 그 주된 수단으로 페루는 2009년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의 수출입 품목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하, 투자자본에 대한 금융혜택 및 592개의 보호품목 개방 등의 적극적 우대 조치를 취했다(Wise 2012). 하지만 양국 간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상보적 교역(또는 비교 우위에 따른 교역)을 가능하게 했던 양국의 산업구조 상의 특징에서 찾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10여 년 간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의 교역과 투자는 중국의 국내 원자재 수요 증가에 따라 채굴산업에 집중되어 증가했으며, 수출의 60퍼센트 이상을 광산업에 의존하는 페루는 이러한 중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에 적합한 상대였다. 이에 따라 페루 광산업의 주요 수요자로서 중국의 중요성

9 후지모리 집권 이듬해인 1991년에 법제화된 광산업 부문 외자 유치를 위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 662조와 광산부문 투자자에게 세제혜택과 수익금 이전 보장 및 환경영향평가제(EIA) 도입 등에 관한 법령 708조(Echave and Torres 2005, 42; Kuramoto 1999, 28)를 들 수 있다.

이 급증했고, 그 결과 1997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페루의 수출품 가운데 광물과 석유가 불과 16퍼센트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2013년 그 비중은 87퍼센트로 증가하게 된다(Sanborn and Chonn 2015, 8). 마찬가지로 페루 광산업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급증해서 구리 총 생산량의 절반 이상과 철광의 94퍼센트가 중국 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Casanova et al. 2015, 12). 더 나아가서 최근 중국은 페루에서 생산되는 광물의 단순한 소비자로서 머물기 보다는 대규모 광산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해 주요 광물들의 생산과 유통 전 단계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을 취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 페루 광산업 부문 해외 직접투자의 33퍼센트를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El Comercio*, 2014년 5월 5일).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자원을 매개로 하는 양국 간 교류가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양 국가 정치 엘리트들의 통치 논리 강화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이다. 먼저 중국의 경우, 1970년대 경제 개혁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는 국가가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국유기업을 매개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적극적인 주체로 기능하는 일종의 “기업가적 국가”(González-Vicente 2011, 404)로 전환해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천연자원개발을 목표로 해외에 진출하는 국유기업은 중국 정부의 새로운 통치이념과 발전 담론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었다. 한편 페루 정치 엘리트들에게 중국 자본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자명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상당수의 남미 국가들이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미국과 국제금융기구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에 반대하여 포스트-신자유주의적 정책 대안들을¹⁰ 실험하는 와중에도 페루는 민영화와 자원 수출 위주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그리고 페루가 이러한 성장주도 경제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유인은 중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으로 인한 광물 가격 상승,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출 시장의 등장 및 중국 국유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광산 기업들의 신규 광산 투자였다. 다시 말해 중국이라는 변수의 등장은 1990년대 이후 페루의 통치 세력들이 정권 재편을 거치며 권위주의적 신민중주의로부터 재민주화, 지방분권주의, 그리고 포용적 성장주의에 이르기까지

10 외채 미상환이나 재조정 선언(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아르헨티나 키르츠네르 정권, 에콰도르 코레이아 정권), 금융업이나 채굴산업 부문의 국유화(볼리비아 모랄레스 정권,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과 마두로 정권, 아르헨티나 키르츠네르 정권, 에콰도르 코레이아 정권) 등이 대표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Yates and Bakker(2013)를 참조하라.

이념적 변화를 표방하는 과정에서도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시장 친화적 신자유주의를 고수할 수 있게 한 외적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¹¹

이처럼 최근 페루와 중국의 경제교류는 양국가의 원자재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논리가 상호 결합되며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서론에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 국가/체제라는 거시적 범주 내부를 구성하는 상이한 이해관계로 뿔어진 이질적인 행위주체들,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는 페루와 중국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이런 점에서 페루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주축을 차지했던 광산개발이 전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광산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 이는 광산업 부문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루와 중국의 경제 교류의 중심에 있는 광산업은 지난 10여 년 간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갈등의 원인은 광산 개발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광산이 위치한 지역 공동체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렇지만 갈등의 기저에는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광산 개발이 그 영향권 하에 있는 주민들의 생계향상이나 인근 지역에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기보다는 생태계 파괴와 박탈 및 소외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사실 광산업은 스페인 식민 시대부터 페루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착취와 소외의 온상으로 비난받아왔다. 이러한 점에서 광산업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라틴아메리카 역사의 일부분을 구성해 온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반(反)광산 운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식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¹², 그 주요 원인은 최근의 반 광산 운동은

11 최근 중국경제침체로 인한 성장둔화에서 페루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연평균 6.7퍼센트를 유지하던 경제 성장률은 2012년부터 4퍼센트 대로 하락했고, 구리 등 주요 광물의 시장가도 대폭 하락했다. 이는 생산성 하락과 신규 해외 투자자 유입 감소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은 중국 GDP 성장률이 1퍼센트 감소할 때마다 페루 GDP 성장률은 2년 당 1퍼센트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Semanaeconómica*, 2015년 11월 11일). 하지만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즉각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들도 제기된다. 그 주된 근거로는 중국계 자본이 주도하는 밤바스 광산과 토모모초 광산이 생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과 중국 시장을 겨냥한 농작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것이다(*Gestión*, 2016년 5월 25일).

12 대표적으로 페루 우말라 정부는 2015년 9월 25일 아프리카 주의 밤바스 광산 개발에 대한 주민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자 즉각 30일간의 비상사태(*estado de emergencia*)를 선포하고 인근지역에 2천 명에 달하는 무장 경찰을 배치했다. 이는

전통적인 광산업 환경에서 발생했던 사회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을 자본가들에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세기 중반까지 지배적이었던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광산들의 경우, 분쟁은 주로 착취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광산노동자들과 광산회사 간의 갈등에 근거했으며, 대부분 광산노동과 농업노동을 병행하는 농업이주민으로 구성된 광산노동자들은 노동쟁의나 파업 등을 통해 사측과의 협의를 목적으로 분쟁에 참여했다(당시 농업 이주민 광부들의 노동과 일상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하라: Boylan(1999), Contreras(1987), DeWind(1987), Long and Roberts(1984)). 반면,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주도하는 자본집약적 광산들의 경우, 갈등 당사자들은 생계를 농업이나 상업에 의존하는 지역주민들과 이들에게 노동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 광산회사들이며, 광산개발에 생계를 의존하기보다는 이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지역주민들은 때로는 광산 개발을 전면적으로 무효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된 일부 사업들의 경우 투자가 전면 취소되기도 했으며, 상당수는 갈등이 중재되는 기간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¹³

페루 정부는 이처럼 반-광산 정서가 확대되고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일련의 대응책들을 강구해왔다. 광산부문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지난 10여 년 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된 개혁 조치들을 성격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광산업 부문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2007년 EITI 가입, 기존의 대통령 산하 총리 부처에서 '환경영향 평가 제도'(Estudio de Impacto Ambiental, 이하 EIA) 승인을 관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EIA 승인 전담 부서인 '환경 지속가능한 투자승인 국가부

같은 해 5월 아레키파 주의 티아마리아 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의 분쟁 이후 두 번째 비상상태 선포였다.

- 13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광산개발사업이 취소된 대표적인 사례는 캐나다 맨해튼사가 투자한 피우라주의 탐보그란데 사업이다. 1996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마침내 2002년 지역주민이 참여한 투표에서 94퍼센트가 사업 취소를 선택함에 따라 투자를 전면 취소했고(Muradian et al. 2003), 2005년 맨해튼사는 6천만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고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Kotschwar et al. 2012, 10). 또한 2004년에는 카하마르카주의 야나코차 광산회사가 추진한 킬리쉬 산 개발 사업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고, 2011년에는 푸노주의 베어크릭사의 산타아나온 광 사업 허가권을 주민들의 반대에 취소하기도 했다. 지역 갈등이 사업 취소로 이어지기보다는 사업 중단이나 지연을 가져오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데, 2015년 기준 총 15개의 사업의 지역 분쟁으로 중단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사업들의 총 투자 규모는 약 670억 달러로 추정된다. 여기에 포함된 사례로는 당시 분쟁 중에 있던 중국 MMG사의 밤바스 사업, 멕시코 서던 페루사의 티아마리아 사업, 야나코차사의 쿡가 사업, 중국계 MMG사의 갈레노 사업 등이다(World Socialist Web Site, 2015년 12월 9일).

서'(Servicio Nacional para la Certificación de las Inversiones Ambientales Sosteíbles)를 환경부에 신설하여 EIA의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한 조치¹⁴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광산업 부문에서 파생하는 이익의 보다 많은 비중이 지역사회에 분배될 수 있도록 조세 제도를 개혁한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gravamen minero와 canon minero라는 세금의 신설과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위한 광산 프로그램'(Programa Mínero de Solidaridad con el Pueblo, 이하 PMSP)의 도입이다. gravamen minero는 2011년 집권한 우말라 정부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당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광산회사들이 막대한 추가 이윤을 창출하고 있었음에도 조세 관련 제도들은 해외투자자 유치가 목적이었던(따라서 친기업적 조세 제도에 기반을 둔) 기존의 1990년대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내부적으로 비판이 팽배했던 상황에서 등장했으며, gravamen minero 명목으로 추정되는 추가 세금은 중앙정부로 귀속되었다(Seo 2016, 87-88). 반면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canon minero는 고립경제로 존재하는 광산업의 문제를 극복하고 광산업에서 파생하는 이윤(사실상 기업 소득세의 일정 비중)의 일부를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수혜자와 집행자가 지역정부라는 차이점을 갖는다(Arellano 2011; Kang 2014, 115-116). 한편 PMSP는 2006년 집권한 알란 가르시아 정권에서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정액을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기구를 구성해 지역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액을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Kotschwar et al. 2012, 10). PMSP는 지역개발사업을 명목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canon minero와 동일하지만 그 투자금의 규모가 후자와 비교해 매우 적고, 지역개발사업의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가져오기 어려우며, 사업의 선정과 운용 및 평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주체가 광산회사이기 때문에 지역정부나 사회의 참여의 여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세 번째 대응 조치는 광산개발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원주민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우말라 집권 첫 해에 인준된 법안(법령 29786조인 Ley del derecho a la consulta previa a los pueblos indígenas y originarios)이 대표적이다. 페루 정부는 후지모리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93년

14 하지만 SENACE가 신설된 후에도 대형 투자 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들의 EIA에 대한 승인은 여전히 대통령 산하 총리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SENACE의 독립성과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Seo 2016, 94).

이 법안의 토대가 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169를 인준한 바 있다. 하지만 협약의 골자인 ‘사전협의제’(consulta previa)는 명목상으로는 존재했을 뿐 실효성이 없었고, 이는 2009년 총 23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바우아 분쟁으로 이어졌다. ‘사전협의제’에 관한 법안의 해석과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여전히 논란과 갈등의 대상이지만,¹⁵ 그럼에도 2012년 법안이 발효된 이후 2016년 4월까지 총 32개 사업에서 법안이 실제 시행되어 일정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CAAAP 2016).

페루 광산업 부문은 이처럼 반(反)광산 정서의 확대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들로 변화를 겪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페루 광산업 부문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들의 기업 관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중국계 기업들은 기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식 기업 행태’라고 부를만한 독자적인 특징에 따라 행동하는가? 그렇다면 그 특징과 원인은 무엇일까? 또는 중국계 기업들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왔을까? 그렇다면 그 전략은 무엇이며, 이것이 중국계 기업 행태 분석에서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셔우강 페루 철광 회사의 마르코나 광산 사업, 치날코의 토로모초 광산 사업, MMG 컨소시엄의 라스밤바스 광산 사업을 사례로 하여 중국계 기업들의 행태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페루 광산업 부문에 진출한 중국 국유기업 사례 연구

셔우강 페루 철광 회사(셔우강 그룹)의 마르코나 광산(1992-현재)

1995년 재정난에 시달리기 전까지 셔우강 그룹은 철광, 광산, 전자, 기계, 건축, 조선, 무역, 금융업 등 9개의 주요 자회사를 거느린 중국의 대표적인 국유기업이었다(González-Vicente 2013, 50). 1992년 셔우강 그룹은 당시 페루 국영회사였던 이에로페루(Hierro Peru)를 118백만 달러에 매입했고, 이를 통해

15 ‘사전협의제’ 법안과 관련한 주된 논란은 첫째, 사전협의 권리를 보장받을 대상으로 설정된 ‘원주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둘째,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셋째, 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시작된 사업에 대한 소급력을 보장할 것인가, 넷째, ‘협의권’에 ‘동의권’ 또는 ‘결정권’을 포함할 것인가 등이다(Sanborn and Paredes 2015, 5-7).

이카 주(departamento de Ica)에 위치한 마르코나 광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수받았다. 마르코나 철광 개발을 위해 설립된 셔우강 페루 철광 회사(Shougang Hierro Peru, S.A.A. 이하 셔우강)는 중국으로서는 시장경제로의 개혁기에 추진된 가장 초기의 국유기업 해외투자였고, 페루로서는 1970년대 벨라스코 군사 정권(1968-1975)에서의 광산 국유화조치 이후 후지모리 정권에서 성사된 최초의 국유기업 민영화 사례이자 곧이어 시작될 광산 붐의 서곡이었다. 이렇듯 셔우강은 후지모리 정권 이후 페루 경제정책의 밑바탕이 될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미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중국 해외 투자였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자본이 투자지역 선택에 있어서 페루를 선호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¹⁶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셔우강은 이내 페루에서 가장 논란적인 광산 회사들 중 하나이자 중국 해외 투자의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로 손꼽히게 된다. 논란은 매각 초기부터 불거져 나왔다. 마르코나 광산 개발은 1950년대로 거슬러 간다. 미국의 유타 건설사(Utah Construcion Company)와 키프로스 광산회사(Cyprus Mines Corporation)는 마르코나 광산 회사를 설립한 후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인근에 ‘산후안 데 마르코나’라는 도시를 개발하고 운영한다. 그리고 1970년대 국유화 조치로 마르코나 광산 회사의 모든 자산은 페루의 국유기업인 이에로페루로 이전된다. 하지만 이에로페루 역시 1980년대 페루를 휩쓸었던 경기 침체와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1990년대 초반 심각한 적자경영에 시달리던 이에로페루를 유지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매년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페루 정부는 심각한 부실 상태인 이에로페루를 셔우강 그룹에 매각하기 위해 800백만 누에보솔 규모의 부채를 공적 자금으로 탕감해주는 조건을 제시했고(González-Vicente 2013, 51), 셔우강 그룹은 120백만 달러에 이에로페루 지분의 98퍼센트와 그에 수반되는 권리 일체(기간 무제한 마르코나 광산 개발권, 광산 주변 670평방킬로미터의 토지 내의 자원에 대한 권리, 기반 시설 일체에 대한 권리 등)를 이전 받았다

16 페루를 투자 지역으로 선택한 중국계 기업들은 페루의 풍부한 자원, 지리적 이점, 투자 환경 이 외에도 거대한 중국이주민 사회와 셔우강을 통해 형성된 중국-페루 관계망을 주된 고려 요인으로 들었다. 중국 투자자들에게 셔우강이 가지는 의미와 관련해 페루에 진출한 중국계 광산회사의 한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략) 페루에 더 많은 중국 회사들이 진출하는 이유는 셔우강 때문이에요. 아무도 처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단 중국 사람들과 회사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훨씬 쉽게 물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González-Vicente 2012, 46 재인용).

(Campos et al. 2014, 27-28). 이에로페루 매각은 대규모 정부예산 투입과 부정부패 의혹, 계약 과정의 철차적 불투명성, 사회적 합의 부재, 장기적 전망 부재 등 논란과 비판을 가져왔다(Manco and Maldonado 2003). 이에 셔우강은 애초 입찰가였던 311백만 달러 가운데 매각 비용 120백만 달러를 제외한 차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150백만 달러를 향후 3년 간 낙후된 광산 시설의 보수와 현대화 명목으로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한 투자금은 집행되지 않았고, 셔우강은 1995년 투자액 집행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불과 38백만 달러만 집행한 상황에서 불이행 금액을 추가로 집행하는 대신 벌금 14백만 달러를 납부하는 합의를 이끌어낸다. 합의 후 사측은 재조정된 이행 기간인 1999년까지 88백만 달러를 추가로 집행하지만, 이 역시 초기 합의금에 미달하는 수치이다(Frost 2005; Irwin and Gallagher 2013, 224). 셔우강의 채무불이행이 애초에 의도된 것이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1995년 셔우강 그룹 본사가 부패 혐의와 경영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내몰렸던 정황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¹⁷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 셔우강의 투자 불이행은 페루 정부나 언론뿐만 아니라 셔우강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셔우강을 둘러싼 논란은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점차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셔우강은 페루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도 두드러질 정도로 노동자, 지역주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대부분의 이해관계당사자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한 경험이 있다. 가장 심각한 갈등은 광산 노조 및 지역주민들과의 대립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르코나 광산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산후안 데 마르코나는 1950년대 미국 자본에 의해 마르코나광산이 개발됨에 따라 조성된 광산도시이다. 국유화

17 1980년대 셔우강 그룹의 회장 주관유(Zhou Guanwu)는 당시 중국 주석 덩샤오핑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해외투자에 있어 중국 국영기업으로서의 전례 없는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받았다. 당시 중국 내 철광 수요가 급증하던 상황에서 셔우강 그룹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마르코나 광산 매입에 나선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해외 투자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이어졌고, 중국 내 철광 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셔우강 그룹의 회장직을 인수한 주관유의 아들인 주베이팡(Zhou Beifang)은 이에로페루를 공시가의 세 배 이상을 제시하며 매각했고, 그 대가로 비리자금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5년 중국 정부는 주베이팡에 대해 비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주관유에 대해서는 회장직 사임을 명령했다(Irwin and Gallagher 2012, 21-22).

이전 광산 소유주였던 마르코나 광산 회사는 리마에서 2시간 정도 거리인 이카 주의 해안사막에 광산도시를 세웠고, 학교, 병원, 도로 뿐만 아니라 전력과 상하수도 등 일체의 기반 시설 역시 광산회사에 의해 생겨나고 운영되었다. 도시의 인구 대부분이 광산에 생계를 의존하며, 광산 회사가 정부를 대신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구도에서 광산회사는 지역 공동체의 일부이자 역사 그 자체이기도 했다. 1975년 마르코나 광산회사가 국유화되면서 광산과 도시의 시설들은 점차 낙후되기 시작했고, 마르코나 광산 노조는 70년대와 80년대 페루 군사정권에서 급격히 부상한 노동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자리 잡게 된다(González-Vicente 2013, 53). 1992년 셔우강 그룹이 마르코나 광산을 매입함에 따라 페루 정부는 광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도시 기간시설에 대한 권리까지 셔우강에 양도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셔우강이 과거 마르코나 광산회사의 역할을 대체할 것을 기대했고, 국유화 시기 페루 정부의 방관으로 인한 낙후성에서 벗어나 광산과 도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셔우강은 노조와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듯이 지역의 후견자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문화에 익숙한 셔우강 관리자들에게 페루의 노사 관계는 이해하기 힘든 성격의 것이었다. 잠재적 갈등의 요소는 1992년 계약 전후부터 축적되기 시작했다. 민영화와 더불어 페루 정부는 마르코나 광산회사의 노동인력을 절반 규모로 감축하며 대량 해고를 감행했고(Irwin and Gallagher 2013, 223), 이에 더해 셔우강은 초기 추가 인력 보장을 위해 중국에서 160명에서 350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유입했다(Irwin and Gallagher 2012, 20; *New York Times*, 2010년 8월 14일). 그럼에도 셔우강이 1995년 투자이행불능을 선언하기까지 셔우강의 노사협상은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95년 셔우강의 투자불이행이 드러나고 사측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듬해부터 셔우강의 노사관계는 중재가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Irwin and Gallagher 2012, 20-21). 셔우강 노조의 파업은 연례행사가 되었고, 매년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산재가 발생했으며, 수십 명이 산재나 파업 중 진압으로 사망했다(Frost 2005)¹⁸. 노사 분쟁의 주요 안건은 저임금,

18 셔우강의 노사분규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의 분쟁을 보면, 2015년 5월 사측의 부당해고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한 명의 노동자가 경찰 진압으로 사망했고(*La República*, 2015년 5월 26일), 같은 해 9월 셔우강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La República*, 2015년 9월 21일).

신규 인력과 기존 인력 간 보수 체계를 차등화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 시설 노후화로 인한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 조건 등이었다.¹⁹

하지만 노사분쟁의 장기화에는 노조를 대하는 셔우강 측의 고압적인 자세도 원인이 되었다. 셔우강은 1995년 투자액 이행 불능을 선언함에 따라 노조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내몰렸을 때, 이러한 조치가 본사인 셔우강 그룹의 재정위기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기 보다는 본사의 상황을 부정하고 은폐하는데 골몰했고, 어떠한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노조와의 협상을 거부하는 편을 선택했다(Irwin and Gallagher 2012, 22).²⁰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노조와 대화하는 대신 사설 경찰을 고용해 진압하고 노조 지도자들을 해고했다. 셔우강의 노사관계 분쟁은 중재역할을 담당하던 중앙정부와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페루 정부는 노사관계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초기에는 노동부를 통해서, 그리고 2003년 이후부터는 지방정부를 통해서 협상 중재자로 나섰다. 하지만 2011년 집권한 오안타 우말라는 노사분쟁 완화를 위해 대통령령을 선포해, 노사 협상에서 어느 한 쪽이든 협상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 협상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협상을 유도할 권한을 갖게 하고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할 경우 노사 양측이 이를 수요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MINTRA). 그리고 같은 해 셔우강 노사협상이 파행으로 끝남에 따라 중앙정부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페루정부 중재 하에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에 셔우강은 이미 협상이 진전된 상황에서 법령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소급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부를 고소했다(Hongxiang 2013). 셔우강과 페루 정부와의 갈등은 이 외에도 여러 건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셔우강은 민영화로 이페루를 인수하던 당시 전력과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정부가 지정하는 업체들(Electro Sur Medio와 Emusa)로 이양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지

19 어윈과 갤러거의 연구에 의하면, 2010-2011년 기준 셔우강 노동자들의 평균 일당(보너스와 수당 제외)은 숙련공(기존 노동자)은 22-27달러, 미숙련공(신규 노동자)은 15-17달러로 전체 평균 약 20달러로 집계되며, 이는 페루 내 다국적 광산 회사들의 평균 임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페루 최저임금의 2.5배에 해당하여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 어윈과 갤러거는 이에 근거해 셔우강의 임금 분쟁은 낮은 임금 보다는 신규 노동자를 차별하는 이원화된 보수 체제에 근거한다고 평가한다(Irwin and Gallagher 2012, 14).

20 어윈과 갤러거는 셔우강 그룹의 위기에 대한 셔우강의 은폐와 회피가 이를 드러냄으로써 셔우강 그룹 경영진의 부정부패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Irwin and Gallagher 2012, 22).

만 이들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1997년에는 자회사(Shougang Generación Eléctrica S.A.A)를 세워 전력 생산을 관리·공급해왔다(Campos et al. 2014, 28-29). 2009년에 셔우강은 나스카 지방정부(Municipalidad de Nasca)의 “마르코나 도시개발계획 2006-2016”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범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나스카 지방정부를 고소해 승소했으며(Campos et al. 2014, 39), 마르코나 일대의 산니콜라스만 항구 설립 사업도 셔우강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었다(González-Vicente 2013, 55).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돌과 갈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셔우강이 시종 일관 고수해왔던 고압적인 자세는 셔우강이 페루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부정적인 관행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게 했다. 하지만 어원과 깔려지는 셔우강과 페루 내 OECD 가입국가 소유의 광산회사들의 관행을 비교하며, 환경적인 지표나 사회적 지표에서 셔우강의 관행이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성취도보다 실제로는 심각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균에 근접하거나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Irwin and Gallagher 2013; 2012). 이들의 접근처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한다면 셔우강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갈등의 전개 양상에서 셔우강이 보여주었던 독단적인 태도와 페루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에의 소극성은 페루 내 다른 다국적 광산회사들과 셔우강을 분명하게 구분 짓는 특징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페루 치날코 광산회사(중국 알루미늄공사)의 토로모초 광산(2007-현재)

페루 치날코 광산회사(Minera Chinalco Perú, S.A., 이하 치날코)는 중국 알루미늄공사(Aluminum Corporation of China Limited, 이하 찰코)의 자회사이다. 2001년에 설립된 찰코는 12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큰 알루미늄 생산자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알루미늄 생산 기업이다.²¹ 찰코의 성장은 2000년대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시장개혁에서 중요한 측면을 구성했던 국제화(going out) 전략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0년대 중반부터 찰코는 중동(사우디아라비아), 오세아니아(호주), 아시아(말레이시아), 중남미(페루), 아프리카(기니, 이집트) 등지에 알루미늄, 구리, 철광 등 다양한 광물자원 투자를 추진해왔으며(Koch-weser 2014, 34-37), 찰코의 이러한 공격적인

21 http://www.chalco.com.cn/zlgfen/gywm/gsjj/A030101web_1.htm

해외 직접 투자는 국유기업을 통한 천연자원생산 다변화와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던 중국 정부가 중국 국가개발은행(Chinese Development Bank)을 통해 찰코에 공적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했기에 가능했다(Campos et al. 2014, 69).²² 2007년 찰코의 페루 토로모초 광산 매입과 이후 치날코의 기업 행태는 2000년대 이후 해외 투자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태도와 이에 따른 국유 기업들의 전략적 변화라는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토로모초 광산은 페루 수도인 리마에서 145킬로미터 거리의 후닌 주(departamento de Junín)의 안데스 산지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상의 고도는 해발 4,540미터이다. 인근의 모로코차 읍(distrito)은 16세기 중반부터 거주가 시작되었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세로데파스코 구리회사(Cerro de Pasco Copper Corporation)가 토로모초 동광을 대규모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Campos et al. 2014, 65). 토로모초 동광 역시 1970년대 벨라스코 군사 정권 하에서 국유화되었으며, 2003년 민영화되기 전까지 페루 국영 광산회사인 센트로민(Central Peru Mining Company)에 의해 운영되었다. 낙후된 기술과 자본 부족으로 지하 광산 채굴에 의존하던 페루 정부는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토로모초 광산의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구리의 낮은 시장가와 토로모초 광산 개발에 소요될 높은 초기 비용 때문에 입찰에 나서는 기업은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토로모초 광산을 노천광 형태의 자본집약적 광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토로모초 산을 허물고, 토로모초 마을을 포함한 거주지 전체를 새로운 곳으로 집단 이주시켜야 한다는 점이었다. 마침내 2003년 세 번째 입찰에서 캐나다의 중형 회사인 페루 구리광산회사(Minera Peru Copper, 이하 MPC)가 매입 의사를 보였고, MPC는 토로모초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MPC의 재정규모로는 토로모초와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 MPC는 대형 광산회사가 소유주로 입찰에 나서기까지 사전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찰코가 토로모초 광산 입찰에 참여한 것은 MPC의 계약이 있고 4년이 지난 2007년이였다. 중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에 따른 구리의 시장가격은 2003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2003년 파운드 당 1.3달러이던 시장가는

22 대표적으로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찰코의 페루 토로모초 광산 투자를 위해 20억 달러를 2.65퍼센트 금리로 대출해주었고, 2009년에는 리오 틴토 입찰을 위해 찰코에 195억 달러의 융자금을 제공했다(Campos et al. 2014, 69).

2007년에는 3.24달러로 2배 이상 상승했다(Pulso, 2015년 8월 31일).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 구리 매장량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2백만 톤의 매장량을 보유한 것(Sanborn and Dammert 2013, 64)으로 평가되는 토로모초 광산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이었다. 하지만 광산개발을 위해 5천 명 이상에 이르는 전 주민을 이주시키고, 이들이 거주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 그 어떤 수익도 내지 못한 채 신도시로의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천문학적 비용²³을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뿐만 아니라 점차 급증하는 반(反)광산 정서를 고려했을 때 주민 전체를 이주시킨다는 발상이 과연 실현가능할 것인가 등의 우려로 인해 토로모초 광산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던, 게다가 국유기업으로서 수익 창출보다는 지하자원 생산 다변화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목표로 삼고 있던 찰코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투자자였다. 하지만 찰코와의 계약을 성사하기까지 몇 가지 우려와 반대의 의견도 존재했다. MPC에서 찰코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다는 반발이 있었고(Campos et al. 2014, 69), 무엇보다도 셔우강의 행태로 인해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중국 국유기업인 찰코가 셔우강의 전례를 따르지 않고 이토록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업을 운영할 자질이 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Kotschwar et al. 2011). 이러한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7년 찰코는 치날코를 설립하고 총 투자 공시금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710백만 달러를 사측 예산으로, 그리고 67퍼센트에 해당하는 14억 달러를 중국 국가개발은행의 융자금으로 지불하며 토로모초 소유권을 획득한다. 이어 2010년 중국 수출입은행은 총 20억 달러의 추가 융자금을 치날코에 제공하여 치날코는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Campos et al. 2014, 69; Sanborn and Dammert 2013, 64)

토로모초 광산 매입 초기부터 치날코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셔우강과는 완전히 상이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셔우강이 광산 매입 직후 관리직뿐만 아니라 광산노동직까지 중국인으로 대체하며 반발을 샀던 것과 달리 치날코는 이전 소유주였던 MPC의 인력을 대부분

23 초기 이주비용은 5천만 달러로 추정되었지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2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Behr Dolbear 2012).

그대로 이전받았고, 페루 양카쉬 주의 거대 구리광산인 안타미나 광산 회사의 사장이자 MPC의 회장이었던 제라드 윌프를 치날코의 초기 회장으로 임명했다(Sanborn and Chonn 2015, 40). 뿐만 아니라 MPC가 모로코차의 주민이주를 위해 고용했던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사회자본그룹(Social Capital Group, 이하 SCG)과 재계약을 하며, SCG를 이주사업의 대행업체로 고용했다(Kotschwar et al. 2011). 서우강이 중국식 기업 문화를 고수하려 하면서 노조와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것과 달리, 다년간에 걸쳐 지역 사회와 관계를 형성하며 신뢰를 구축해오고 지역의 문화와 필요를 이해하고 있었던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한 것이다.²⁴ 게다가 치날코의 초기 접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주민이주의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주민 동의에 의한 자발적 이주 방침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2007년 기준 인구 5,397명의 모로코차는 경제활동 인구의 63퍼센트가 광산 노동자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4.5퍼센트를 제외할 나머지는 모두 광산과 연계된 상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광산 도시이다(Sanborn and Dammort 2013, 68). 수 백 년에 이르는 광산 생산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상당수의 주민들이 광물 생산으로 인한 유해물질에 중독되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다. 자기 소유의 주거지를 보유한 주민은 전체의 39퍼센트에 불과하며, 70퍼센트의 가구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농촌 지역의 42퍼센트에는 전력 공급이 차단된 상태였다(Sanborn and Dammort 2013, 68). 모로코차 주민들 다수에게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유일한 대안은 광산 회사를 통한 신도시로의 이주였고, 따라서 이주 협상에서 주민 다수결의 합의를 얻어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⁵ 신도시 부지로 카르와코토가 선정되었고, SCG는 이주 조건과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전체 주민을 기존 거주 형태와 재산 소유권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분류했다.²⁶ 토로모초 광산이

24 SCG에 소속된 실비아 마토스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국인들은 아주 현명하게도 숙련된 페루인 팀에게 전 과정을 맡겼습니다. (중략) 얼마나 많은 집을 짓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쓸지 등의 중요한 결정은 중국인들이 합니다. 하지만 페루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역할이에요”(Poulden, 2013년 4월 15일 재인용).

25 치날코는 SCG 주도로 수십 차례의 주민간담회를 개최했고, 2009년 마침내 주민들 가운데 69퍼센트로부터 이주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Campos et al. 2013, 72).

26 SCG가 분류한 다섯 유형의 가구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지 소유자-수혜자: 약 150 가구, 모로코차에서 거주지를 소유하던 가구로 카르와코토로 이주; 2) 세입자-수혜자: 약 700가구, 모로코차에서 세들어 살던 가구로 카르와코토로 이주; 3) 세입자-하위 등급 수혜자: 28개 가구, 기존 거주 기간이 짧아 초기에는 수혜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나중에

생산 단계에 접어든 2013년 12월까지 총 3,316명이 카르와코토로 이주했고, 이듬 해 봄까지 약 100 가구가 이주를 거부하고 있었다(Campos et al. 2013, 73). 카르와코토로의 이주는 기존 모로코차에 존재하던 경제적, 계급적 차이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이주 대상 주민들로부터 상이한 반응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Neuman 2013), 이는 이주 계획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²⁷ 또한 모로코차의 시장은 치날코가 이주민들에게 광산에서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며, 3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쿠스코의 엑스트라타 광산의 경우처럼 더 넓은 거주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Neuman 2013). 갈등은 2013년 8월 페루 정부가 지반 침하로 인한 위험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속한 주민 이주를 명령하면서 심화되었다. 일부 주민들과 시민 사회 측은 페루 중앙 정부가 주민들의 이주를 강제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의혹을 내보였고, 페루 정부는 수차례 비상사태를 선포하려 했지만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다렸다는 입장이었으며, 치날코는 이미 주민 대부분이 이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사태 선포와 치날코의 자발적 이주 정책 고수 방침과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Campos et al. 2013, 75).

토로모초 광산은 2013년 12월 생산시설 가동을 시작했지만 공업용수 확보 및 오염물질 방출에 따른 시설 보수 등으로 계획했던 생산량 도달 시점이 연기되었고, 2015년 6월에 이르러서 상업적 목적의 생산을 개시했다. 치날코의 신도시 건설과 자발적 주민 이주 사례 및 일련의 지역 개발 사업은 치날코를 서우강과 대비되게 했으며, 치날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국계 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어 왔다(Irwin and Gallagher 2013, 227-228; Koch-Weser 2014, 18; Kotschwar et al. 2011; Sanborn and Chonn 2014; 2015). 치날코가 지역 사회와 계속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수혜 대상에 선정되어 카르와코토로 이주; 4) 세입자-비수혜자: 109가구, 자격 미달로 인해 이주 후 거주지 임차료 지불 의무자; 5) 비 세입자-비수혜자: 200가구, 자격 미달로 인해 카르와코토로 이주 불가, 치날코가 제3지역으로 이주비를 지원함(Campos et al. 2013, 73).

- 27 2013년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면, 비르히니아 바라도리드라는 이름의 주민은 카르와코토로 이주한 이후 생전 처음으로 일당 3달러의 일자리를 구했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이주 후 처음으로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진 집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지난 15년 간 모로코차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며, 당시 그 어떤 것도 그립지 않다고 말한다. 반면, 모로코차에서 4대에 걸쳐 자리 잡고, 50평대 집에서 거주하던 소니아 안시에타는 이주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그녀는 치날코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치날코의 이주 사업으로 인해 지난 세월 동안의 기억과 정체성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표했다(Neuman 2013).

상급히 판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주민 이주 과정에서 발생했던 내부적인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신도시 이주로 인해 주민들의 기존 생계 기반이 해체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생계 수단을 제시할 책임을 치날코가 지게 되었다는 점 등은 치날코에게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MMG 컨소시엄(중국 오광 그룹)의 라스밤바스 광산(2014년-현재)

2014년 4월 13일 중국 국유기업 민메탈(China Minmetals Corporation: 중국 오광 집단공사: 中國五礦集團公司, 이하 민메탈)의 홍콩 상장 자회사 MMG가 주간사가 된 중국 컨소시엄²⁸은 페루 아푸리막 주에 위치한 라스밤바스(이하, 밤바스) 구리광산의 지분을 현금 58억5천만 달러²⁹에 인수했다(*El Comercio*, 2014년 4월 14일). MMG의 밤바스 매입은 페루 내 중국 자본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기록적인 사업 규모와 관련이 있다. 먼저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밤바스는 페루에서 가장 큰 광산으로 밤바스의 연간 구리 생산량은 45만 톤(두 번째 규모는 토로모초 광산으로 연간 최대 30만 톤의 구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Oxford Business Group* 2015, 99). 2016년 밤바스가 생산에 돌입함에 따라 페루는 칠레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의 구리 생산국가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La República*, 2015년 11월 25일). 둘째, 밤바스 매입으로 2014년 기준 페루에서 중국 누적 투자금은 총 190억 달러로 집계되며, 중국은 페루 광산업 부문을 선도하는 투자국이자 총 생산량의 30퍼센트를 관리하게 되었다(*El Comercio*, 2014년 4월 14일). 한편 민메탈의 기업전략과 밤바스 매입은 중국의 해외투자 관행에 있어서도 주목할 변화를 보여준다. 2000년대 중국 정부는 국유 기업의 국제화 정책을 성장 전략으로 표방한 이래로 다양한 경영 전략을 추구해왔으며, 자원 공급처의 다변화와 해외 주요 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영역 확장이 새로운 전략의 한 축을 구성해왔다. 1950년대 설립된 민메탈은 천연자원 개발 이 외에도 금융업, 부동산, 물류부분까지 포괄하는 대형 기업으로 2014년

28 밤바스 컨소시엄은 모두 중국 자본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62.5퍼센트는 MMG, 22.5퍼센트는 귀신(Guoxin) 국제투자유한공사, 15퍼센트는 중국 국제투자신탁공사(CITIC:중신금속)의 투자로 구성되었다.

29 MMG의 밤바스 매입가는 주요 기간 시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58억5천만 달러에서 70억 달러로 인상되었다(*El Comercio*, 2014년 8월 1일). 밤바스가 생산 가동 단계에 이르기 까지 추가로 소요될 사업비를 합하면, 총 투자액의 규모는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El Comercio*, 2014년 11월 28일).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133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00년대 이후 민메탈은 2004년 미국의 셔윈(Sherwin) 인수, 2006년 칠레 구리공사(CODELCO)와 합자회사 설립, 2008년 캐나다 북페루 구리공사(NPC) 인수, 2009년 호주 오즈미네랄(OZ Mineral)인수, 2012년 캐나다 앤빌(ANVIL) 인수 등 인수합병을 통해 세계적 규모의 광물기업으로 변신해갔다(*Nespm*, 2014년 8월 12일). 민메탈을 통해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밤바스 계약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2004년 스위스 엑스트라타 광산회사에 의해 탐사와 개발이 시작된 밤바스 광산은 2013년 세계 1위의 원자재업체인 스위스의 글렌코어와 엑스트라타가 합병함에 따라 글렌코어·엑스트라타(Glencore Xstrata)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합병 전으로 광물 공급에서 글렌코어가 독점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합병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밤바스 광산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밤바스 광산 매입의 주체가 중국계 기업이 될 것은 인수자 공모 이전부터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다(BBC 2015년 9월 11일). 민메탈은 공격적인 세계 원자재 시장 점유와 더불어 기업 경영 전략에서도 기존의 중국 기업들과는 차별화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중 일부를 소개하면 첫째, 중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ICMM에 가입하고 EIT를 지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관행과 관련된 국제기업 규범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Blackmore et al. 2013, 8), 둘째, 전 세계 28개 국가에 설립되어 있는 해외지사를 토대로 중국 본사를 통한 수직적 경영보다는 개별 사업 관리에 최적화된 해외지사의 인력과 정보력을 활용하고 있고,³⁰ 셋째, 그 결과 개별 사업의 투자 협상과 경영 전반에 걸쳐 최고 경영진과 관리직 대부분을 중국인보다는 현지인과 해외 전문가들로 채우고 있다(González 2011, 407; Irwin and Gallagher 2012, 26). 중국 국유기업이지만 국제화를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극도로 탈중심화되고 탈중국화된 기업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2014년 8월 MMG의 밤바스 계약 성사에 대해 중국 정부와 페루 정부는 중요한 경제적 성과라는 만족감을 내보였지만, 이듬해 밤바스 인근의 주민들은 광산의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

30 단적으로 MMG의 본부는 호주 멜버른에 위치하고 있으며, 밤바스의 홈페이지에 실린 기업 소개글에는 밤바스의 소유주가 중국 자본이라는 설명이 없으며, 대신 호주와 캐나다 및 콩고 등의 광산 협회 소속이라는 설명만 제시되어 있다. <http://www.lasbambas.com/acerca-de-las-bambas/consorcio/acerca-de-mmg-limited.html>

2015년 9월 25일부터 수일에 걸쳐 페루의 언론과 정재계는 밤바스 광산 인근 주민들의 시위로 인한 분쟁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밤바스 광산에 반대하는 1만5천 여 명의 지역 주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El Comercio*, 2015년 9월 28일). 페루 정부와 정계의 반응은 매우 신속했다. 페루 정부는 9월 29일 분쟁 발생 지역 인근 다섯 개 군(provincia)에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천여 명의 군대와 경찰 병력을 파견했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일제히 차단했다(*El Comercio*, 2015년 9월 30일a). 대선을 앞두고 있던 유력 대선 후보인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와 게이코 후지모리는 페루 정부가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 중재에 나서는 대신 군대를 파견해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일제히 페루 정부를 비난했다(*El Comercio*, 2015년 9월 29일). 페루 유력 일간지 *El Comercio*는 마르코 아라나와 아푸리막 주의 반정부 세력이 외부 세력으로 개입하여 시위를 주도했다고 비난하며, 이들이 현재 페루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을 신기도 했다(*El Comercio*, 2015년 9월 30일b). 밤바스의 주민 시위와 분쟁은 밤바스 프로젝트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임이 자명했다. 특히 이번 시위와 분쟁은 밤바스가 생산단계에 돌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98퍼센트를 완료한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따라서 기존의 탐사나 시설 설비 초기 단계에서 발생했던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그로 인한 생산 지체나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밤바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시위는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했으며, MMG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와 관련해 이 분쟁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한 이는 밤바스 사업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향후 MMG가 취하게 될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밤바스 광산은 페루 중남부 아푸리막 주의 그라우 군과 코차밤바스 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아푸리막 주는 전통적인 농축산업과 지역 내 소규모 상업 이외의 두드러진 생산 활동이 없는, 경제적으로 페루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에 속해왔다.³¹ 아푸리막 주는 특히 1980년대

31 2015년 아푸리막 주의 총부가가치는 0.5퍼센트로 페루 24개 주 가운데 23번째를 차지했다(Banco Central de Researva del Perú). 2012년 페루 통계청(INEI)의 조사에서 아푸리막 주의 빈곤율은 55.5퍼센트로 나타나 페루에서 가장 가난한 주로 평가되었지만, 2014년 INEI 조사에서 아푸리막 주의 빈곤율은 42.8퍼센트로 집계되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Gestión*, 2014년 5월 2일).

센데로 루미노소 게릴라군의 주요 활동 무대로 극심한 폭력과 내분에 시달렸으며, 이는 정부와 외부 세력 및 무장집단을 극도로 불신하는 문화로 이어졌다 (Gouley 2005, 22-23). 하지만 1990년대 대형 광상들의 개발이 일제히 일어남에 따라 아푸리막 주의 경제적·사회적 지형은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 그 결과, 아푸리막 주는 현재 진행 중인 20여 개의 광산 개발 사업 이외에도 향후 수년간 페루에서 가장 많은 대형 광산 사업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주이며(*El Comercio*, 2015년 6월 23일), 1990년 전체 토지 가운데 광산 채굴 구역으로 양도되었던 토지 비율이 불과 3.37퍼센트였던 반면, 2014년 그 비율은 68퍼센트로 급증하게 된다(CooperAcción 2014, 1-2; De Echave et al. 2009, 150).³² 밤바스 광산이 위치한 지역은 이러한 아푸리막 주의 변화를 가장 극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곳이다. 밤바스 광산 매각은 ProInversión이라는 페루 투자진흥 기관에 의해 2003년부터 추진되었다. 총 14개의 광산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스위스의 엑스트라사가 최종 승자로 선정되었다. 총 4개의 광상(Chalcobamba, Ferrobamba, Sulfobamba, Charcas) 개발권이 허가되었고, 초기 투자금의 규모는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예측되었다(De Echave et al. 2009, 152-153). 밤바스의 규모와 성격은 페루 북중부 안데스의 양카쉬 주에 위치한 안타미나 광산과 흡사할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전체 매장량과 투자 규모, 안데스 고산지대에 위치함에 따라 극심한 지리적 고립성, 전통적인 농촌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 안타미나 광산회사와 엑스트라사의 기업 문화적 공통성 등에 근거했다(안타미나 광산 사례에 관해서는 Kang(2014)을 참조하라).

밤바스 광산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찬반이 양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푸리막 주와 관련해 언급했듯이 이 일대는 대부분 자급자족 농업에 의존하는 케추아어 사용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광산 개발이 시작되기 전 2000년대 초반까지도 지역 내 화폐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거래가 물물교환경제(trueque)에 기반하고 있었으며(*La República*, 2004년 4월 26일; *LA Times*, 2016년 2월 25일), 인간개발지수에 있어서도 페루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극도의 고립성과 경제적 낙후성을 보이는 지역이었

32 광산채굴을 위한 토지양도비율은 밤바스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더욱 극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기준 코차밤바스 군은 전체 토지 가운데 89.66퍼센트가 광산채굴지역으로 양도된 것으로 집계되며, 그라우 군에서 그 비율은 72.15퍼센트로 집계되었다 (CooperAcción 2014, 8-9).

다. 그라우 군의 일부 지역에서는 영세 광산 활동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밤바스 광산과 같은 대형 광산 개발 사업의 성격이나 파급력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는 매우 낮았고, 주민들 사이에는 광산으로 인한 강제이주나 환경오염 및 생계수단의 박탈 등에 대한 두려움과 대규모 개발 사업에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혜택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었다(De Echave 2009, 156-157). 이러한 상황에서 엑스트라사와 ProInversión은 주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광산이 가져올 혜택을 적극적으로(때로는 과장해서) 홍보하고 약 6천만 달러에 이르는 지역개발기금을 기탁했다(De Echave 2009, 153). 엑스트라사는 또한 페루의 싱크탱크 기관인 GRADE를 고용하여 영향권 내 지역들의 생활 실태와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필요에 대한 기초 조사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개입계획(Plan de Involucramiento Social)을 수립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한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실태 조사에 토대를 둔 지역개발사업 수립 방침은 안타미나 광산 회사가 사업 초기 GRADE를 비롯해 외부의 개발전문기관들을 고용해서 수행했던 접근법과 매우 유사하다(Kang 2014). 엑스트라사는 또한 광산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이주가 불가피해진 푸에라밤바 농민공동체와의 협상과 이들의 새로운 거주지 설립에 착수했다.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다양한 개발 NGO들과 자체적인 지역개발팀(Fondo Social Las Bambas, FOSBAM) 운영을 통한 사업 관리 등은 내부적인 분란에도 불구하고 엑스트라사가 지역주민들과 극단적인 충돌을 피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밤바스가 위치한 지역들이 내부적으로 그 사회구조가 상당히 분절되어 있고, 정치적 조직화의 경험이 낮다는 점(De Echave 2009, 195-199)과 사업이 여전히 생산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 등도 밤바스 사업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을 완화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4년 MMG의 밤바스 매입으로 상황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2015년 9월 25일 발생한 충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엑스트라사에서 MMG로 소유권자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환경영향평가(EIA)에서 제시했던 생산 단계와 상이한 생산절차들이 주민들의 추가적 동의 없이 페루 정부와 MMG 양자 간의 협의만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변동된 사항은 첫째, 엑스트라사가 소유하는 틴타야 광산이 위치하는 에스피나르 군에 설치하기로 했던 폴리브텐 처리 공장과 여과물 처리 공장을 MMG로 소유주가 변동됨

에 따라 밤바스 광산 인근 지역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 둘째, 이전 계획에서는 에르피나르 군에 설치하기로 했던 공장으로 광물을 운송하는데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이용하기로 했던 반면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도로에서 화물차로 광물을 이송하기로 한 것이다(*El Comercio*, 2015년 10월 4일). 파이프라인이 아닌 매일 125대의 화물차를 통한 광물의 운송은 먼지와 소음 발생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유출 가능성, 교통량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페루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비롯해 MMG 사측은 변화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는 탐사와 시설 설비 구축에 11년 이상을 소요하고 이제 생산 가동을 불과 수개월 남긴 시점에서 EIA 수정사항에 대한 주민 합의를 얻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로 인한 추가적 시간 소요 및 이로 인해 발생할 비용 등을 피하고자 하는 사측과 정부 측의 계산에서 비롯된 조치로 판단된다. 분쟁 발생 직후 페루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사측과 주민대표들은 수차례의 협상 모임을 열었고, 비상사태 선포는 선포 1주일이 지난 10월 6일에 해제되었다. 구체적인 협상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MMG는 예정대로 2016년 1월 일차 구리정광을 선적했다.

밤바스 광산 매입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근거로 밤바스에서 MMG의 기업 전략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MMG의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외부적 요인들을 언급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MMG는 ICMM 가입과 해외지사 네트워크 활용 및 외국인 전문가 인력 고용 등을 통해 기존의 중국 기업들과는 차별화되는 국제화된 경영 문화를 추구할 것을 표방해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더 나아가서 밤바스 광산의 이전 소유주인 엑스트라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MMG의 경영에 있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안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산 매입 초반부터 지역 주민들과 극단적인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MG가 충분하고도 효율적인 지역 개발 사업 운영과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신뢰 획득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요소도 매우 많다. 무엇보다도 지난 수년 간 중국경제의 침체와 구리시장이 하락에 따라 구리 생산에 따른 수익성이 급락했고, 그

결과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밤바스가 생산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푸에라밤바 주민들이 누에바 푸에라밤바로 불리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함에 따라 보상 수위를 두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누에바 푸에라밤바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LA Times, 2016년 2월 25일) 등이다.

사례 비교 분석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와 기업 행태

마르코나 광산회사의 셔우강 철광회사, 토로모초 광산의 치날코 광산회사, 라스밤바스 광산의 MMG 컨소시엄은 모두 중국의 대표적인 국유기업들(셔우강 그룹, 찰코, 민메탈)의 자회사이다. 하지만 광산 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 치날코와 MMG는 셔우강과 비교해 매우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페루에 가장 먼저 진출한 중국 기업인 셔우강은 경영진 대부분과 일부 광산 노동 인력을 중국인으로 채웠으며, 노사 분규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국식의 문화를 강조했다. 셔우강은 페루의 광산 회사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형 광산이 개발될 경우 광산 회사들이 일부 기간 시설이나 주거 시설 등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되는 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셔우강은 또한 페루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와 소유권의 문제로 마찰이 생길 때 대화와 협상 보다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입장을 강요하기도 했다. 심지어 셔우강은 1995년 비리 스캔들이 불거짐에 따라 중국 정부와도 마찰을 빚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정부의 재정적, 정치적 지원을 보장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셔우강의 기업 행태는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페루 전반에서 많은 반발과 비판을 초래했고, 이후 페루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점은 치날코와 MMG는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중국계 기업이라는 점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치날코는 토로모초 광산의 이전 소유주였던

MPC의 회장이었던 제라드 윌프를 초기 회장으로 임명했고, MPC가 고용했던 SCG과 재계약을 맺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담당하게 했다. MMG는 호주에 있는 해외지사의 인력과 정보력을 적극 활용했으며, 최고 경영진과 관리직 대부분을 페루 현지인과 호주인들로 구성했다. 치날코와 MMG는 또한 광산 개발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혀왔다. 이는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외적 요인들로부터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인데, 첫 번째로 두 기업 모두 중국의 공적 금융 기관들(치날코는 중국 국가개발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 MMG는 귀신 국제투자유한공사와 중국 국제투자신탁 공사)의 자금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개별 공적 기관들이 요구하는 보다 까다로운 사회적·환경적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Kotwchwar et al. 2012, 16-17), 두 번째로 이전 소유주들(치날코의 경우 MPC, MMG의 경우 엑스트라사)이 이해 당사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규범 준수를 중요한 기업 전략으로 채택해왔기 때문에 치날코와 MMG도 이해당사자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기존 소유주들의 취해왔던 접근 방식에서 크게 변화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셔우강과 대비되는 치날코와 MMG의 기업 행태는 페루에 진출한 중국 국유 기업들이 점차 탈중심화되고, 탈중국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페루의 천연자원관리체계 변화와 기업 행태

앞서 살펴본 대로 1990년대부터 페루는 친기업적 민영화와 자원수출위주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일관된 기조로 삼아왔다. 하지만 해외투자자들이 주도하는 대형광산개발 사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폐해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광산 부문의 법적·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왔다. 셔우강, 치날코, MMG가 페루에 진출한 시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에 이르며, 이는 페루 광산업 부문의 투자 환경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들이 진행되었던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변화는 각 기업들의 관행과 경영 전략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셔우강의 마르코나 광산, 치날코의 토로 모초 광산, MMG의 밤바스 광산은 모두 입찰 당시 페루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에 해당했으며, 페루 정부와 언론들은 이들 사업이 페루의 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세 사업들 모두 계약 당시 페루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친화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비판들³³이 제기되었으며, 투자자 선정에 있어서 페루 시민 사회나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는 차단되어 있었다. 이는 해외투자자 유입을 위해 페루 정부가 일관되게 친기업적 태도를 견지해왔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업 시행 과정에서 페루 정부가 추진해온 법적·제도적 규제들은 이 기업들의 행태와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세 기업들의 진출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특히 MMG의 경우 사업 기간이 이제 2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하지만 셔우강과 치날코의 사례를 토대로 MMG를 비롯한 이들 중국 국유기업들의 향후 전략들을 예상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1997년부터 PAMA라는 제도로, 그리고 2001년부터는 EIA라는 제도를 통해 페루 정부는 광산부문 사업들의 환경적,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들에게 사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992년에 사업을 개시한 셔우강의 경우, PAMA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6년까지는 이러한 환경적·사회적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초기 5년간은 특정한 규제 없이 진행되었다. 이후 건설된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모두 환경영향평가지가 적용되었고,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총 7차례의 EIA를 제출했다(Campos et al. 2014, 43). 치날코와 MMG는 이전 소유주들에 의해 작성되었던 EIA가 승인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했으며, 2015년 치날코는 13억 달러 규모의 확장 사업에 대한 EIA를 추가로 승인 받았다. 사전평가제도인 EIA가 개별 사업의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수는 있지만 피해를 차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2014년 3월 페루 정부는 토로모초 광산의 가동 직후 강수량 증가로 인해 산성 물질이 인근 호수에 유입됨에 따라 치날코에 사업 중단을 명령했고, 치날코는 이에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원인 파악과

33 셔우강의 경우, 이에로페루 매각 조건으로 페루 정부가 거액의 부채를 탕감해 줌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타당성 논란, 계약과정의 불투명성, 당시 셔우강 회장에게 불법 비자금을 지불한 혐의, 사업의 장기적 전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등이 논란이 되었다(Manco and Maldonado 2003). 치날코의 토로모초 광산 입찰에서는 전소유주인 MPC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면세가 문제가 되었다(Campos et al. 2014, 69). 밤바스의 경우, 엑스트라타사에서 MMG로의 소유권 이전 협상과 계약 절차가 페루 외부에서 진행이 되었고, 소유권 이전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El Comercio*, 2015년 10월 3일).

보수 조치 후 다시 가동했다. 이처럼 추가적인 폐해는 페루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수반된다면 일정 정도 통제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밤바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페루 정부는 소유권 변경에 따라 기존 EIA에 중요한 수정사항이 생길 때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 마련의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생략함으로써 극심한 사회적 분쟁을 초래했다. 밤바스에서의 분쟁은 EIA가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EIA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기업뿐만 아니라 페루 정부의 엄격하고도 일관된 자세와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법제화된 PMSP와 canon minero 및 기타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사업과 관련해 사례들을 살펴보자, 광산 초기 투자비용 전액 회수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 canon minero는 현재 셔우강의 경우에만 집행되고 있으며, 치날코와 MMG의 경우 수년 후에야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정부가 수혜자와 집행자가 되는 canon minero 사업에 있어서 개별 기업들의 역할은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2006년 알란 가스시아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PMSP는 2011년 만기되었으며, 이 제도가 적용되었던 셔우강은 회사 내의 지역개발 전문팀(Asociación Civil del Hierro)을 통해 PMSP 명목으로 총 1천2백만 달러를 집행했으며, 주로 지역 교육 사업에 투자했다고 밝혔다(Campos et al. 2014, 44-45). 그 밖에 셔우강은 1천3백만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3천9백만 달러 규모로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가로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치날코의 지역개발사업은 대부분 카르와코토 신도시 개발 사업과 모로코차 주민 이주 및 이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는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신도시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서 가장 핵심은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소유권 보장과 고용 창출로 보인다. 2015년 9월 기준 치날코는 이주 가정 가운데 84.4퍼센트에 대한 소유권 보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Chinalco al Día, 2015년 9월). 반면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마땅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가 이루어지기 전에 치날코는 주민들에게 3,200개의 건설 노동직과 2,400개의 광산노동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Campos et al. 2014, 76). 하지만 광산이 생산단계에 접어들면서 건설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고, 게다가 자본집약적인 광산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노동력을 지역사회에서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치날코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천광에서의 작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노동력 양성에 투자하고 있지만, 2014년 기준 지역 내 회사에 직접 고용된 주민들의 수는 356명에 불과했으며, 1,751명이 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다고 하지만 간접고용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아 이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고용 창출로 보기는 어렵다 (Campos et al. 2014, 76).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기여와 이주민 보상 논쟁은 비단 치날코만의 문제는 아니다. 밤바스 사업을 시작한 MMG의 경우에도 이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보상과 지역개발 등의 문제를 두고 사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LA Times*, 2016년 2월 26일), 어떠한 형태로든 MMG는 추가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canon minero의 집행이 주민 사회와의 관계에서 치날코와 MMG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canon minero의 분배와 집행이 새로운 갈등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기존 연구들(Kang 2014; Arellano 2011)을 고려할 때 낙관하기는 이르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페루 정부의 법적·제도적 개혁들이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 그쳤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대응과 기업 행태

셔우강의 마르코나 광산 인근의 산후안 데 마르코나와 치날코의 토로모초 광산 인근의 모로코차는 모두 전통적인 광산 도시였다. 이 두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광산 노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영위해 왔으며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 역시 광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특히 셔우강 노조는 1970년대와 1980년대 페루 군사정권 하에서 급부상한 페루 노동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급진화되었다. 광산이 공동체 삶의 일부였던 이들에게 광산 반대 운동은 광산의 개발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광산 내에서 일어나는 노동 착취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반면 MMG의 밤바스 광산 개발이 진행되는 아푸리막 주의 그라운 군과 코차밤바스 군은 이와는 완전히 상이한 환경이다. 안데스의 전통적인 농촌 지역인 이 일대에서 광산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인 농축산업과 완전히 대체되는, 오히려 주민들의 전통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광산에 대한 반대는 노동·착취가 아닌 토지로부터의 '박탈'(Anthony Bebbington and Denise Humphreys(2011)를 비롯한 신채굴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반(反)광산 운동의 주요 정서인

“dispossession”)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며, 이 경우 반(反)광산 운동은 광산 활동과의 공존을 통한 변화가 아닌 광산을 배제해야 획득되는 상태를 지향한다. 이와 관련해 곤살레스 비센테는 셔우강의 ‘착취’ 반대 운동의 담론이 현재 안데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탈’에 대한 문제제기에 근거하는 반(反)광산 운동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셔우강의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할 수 있는 외부 운동 단체들과의 결집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따라서 셔우강 노조가 페루 국내에서 갖는 영향력이 제한되어 왔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González-Vicente 2013, 54). 하지만 셔우강과 MMG 사례에서 산후안 데 마르코나 주민들이 강력한 노동 운동의 전통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MMG의 밤바스 사업 인근의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고립되고 분절된 사회구조 하에서 매우 제한된 집단행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셔우강, 치날코, MMG가 지역 사회에서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역 주민들과 공존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은 개별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에 근거해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셔우강과 비교해 치날코와 MMG가 탈중심화되고 탈중국화된 방식으로 지역 사회와 소통해왔다는 사실은 해외투자에 있어 중국 국유기업들의 전략적 유연성을 드러낸다.

결론

21세기에 접어들며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경제적 지형을 결정짓는 주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정치적 협력자로 자리잡아왔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국가중심적, 체제중심적 접근에 치중해 있으며, 관계를 이끌어 가는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유동성과 다양성은 아직 충분히 논의되거나 연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셔우강, 치날코, MMG 세 기업을 사례로 하여 페루에 진출한 중국 국유기업들의 기업 행태와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들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주목하고자 했다. 셔우강, 치날코, MMG는 각각의 경험을 또는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이들 세 기업들에 공통되는 특징들 역시 존재한다. 세

기업들 모두 페루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후원을 주된 자원으로 삼았지만,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들에게 중국계 기업이라는 사실은 지역 사회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자원이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치날코와 MMG는 중국식 네트워크와 문화를 고수하기 보다는 기존 소유주나 현지 전문가들을 고용해 현지 사회와의 소통에서 매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개별 기업들이 진출 시기에 따라, 그리고 페루의 법적, 제도적 변화와 현지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상이한 대응 전략을 취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세 기업들의 행태와 전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국식 기업 모델이라는 단일한 기준을 찾으려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 국유 기업들의 행태와 전략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이들이 중국계 기업이라는 사실보다는 페루의 투자 환경과 관리체계 및 지역 주민들의 대응력 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우려들의 해법은 변화를 위한 양 측의 의지와 노력이 동반될 때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rellano, Javier(2011), *Minería sin fronteras? conflicto y desarrollo en regiones mineras del Perú*, Lima: IEP; PUCP; Universidad Antonio Ruiz de Montoya.
- Armony, Ariel C.(2012), “A View from Afar: How Colombia Sees China,” *The China Quarterly*, No. 209, pp. 178-197.
- Armony, Ariel C., and Nicolás Velásquez(2015), “Anti-Chinese Sentiment in Latin America: An Analysis of Online Discourse,”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20, pp. 319-346.
- Bebbington, Anthony and Denise Humphreys Bebbington(2011), “An Andean Avatar: Post-Neoliberal and Neoliberal Strategies for Securing the Unobtainable,” *New Political Economy*, Vol. 16, No. 1, pp. 131-145.
- Boylan, Paúl Rizo Patrón(1999), “La Minería entre 1900 y 1950,” in José Antonio Del Busto(ed.), *Historia de la minería en el Perú*, Lima: Compañía Minera MILPO S.A.
- CAAAP(2016), *¿Cómo va la aplicación de la consulta previa en el Perú? avances y retos*, Lima: Centro Amazónico de Antropología y Aplicación Práctica (CAAAP).
- Casanova, Carlos, Le Xia, and Romina Ferreira(2015), *Measuring Latin America's Export Dependency on China*, Working Paper No. 15/26, BBVA: Hong Kong.
- Campos, Jason et al.(2014), *Chinese Investment in the Peruvian Mining Sector: Corpo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Prepared for the World Resources Institute, Washington, D.C.: American University.
- Carol Wise and Yong Zhang(2014), “China and Latin America's Emerging Economies: Debates, Dynamism, and Dependence,” Paper presented on the panel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a-Latin American Relations,” ISA-FLACSO Conference, Buenos Aires, Argentina.
- Contreras, Carlos(1987), *Mineros y campesinos en los Andes: mercado laboral y economía campesina en la Sierra Central, Siglo XIX*, Lima, Perú: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IEP).
- CooperAcción(2014), “Informe de seguimiento de las concesiones mineras en el Perú,” Región Apurímac, Informe 2014, http://cooperaccion.org.pe/main/images/MAPAS/informes-concesiones/2014/2014_Apurimac.pdf
- De Echave et al.(2009), *Minería y conflicto social*, Lima, Perú: CBC, CIPCA, CIES, IEP.
- DeWind, Josh(1987), *Peasant Become Miners: The Evolution of Industrial Mining Systems in Peru, 1902-1974*,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 Dosch, Jörn, and David S.G. Goodman(2012), “China and Latin America: Complementarity, Competition, and Globalisation,”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Vol. 41, No. 2, pp. 3-19.
- Echave, José de, and Víctor Torres C.(2005), *Hacia una estimación de los efectos de la actividad minera en los Índices de pobreza en el Perú*, Lima, Peru: CooperAcción.

- Gallagher, Kevin P.(2010), “China and the Future of Latin American Industrialization,” Issues in Brief 018, The Frederick S. Pardee Center for the Study of the Longer-Range Future, Boston University.
- Gallagher, Kevin P. and Roberto Porzecanski(2010), *The Dragon in the Room: China and the Future of Latin American Industrialization*,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nzález-Vicente, Rubén(2011),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hinese State,” *Political Geography*, Vol. 30, pp. 402-411.
- _____(2012), “Mapping Chinese Mining Investment in Latin America: Politics or Market?,” *The China Quarterly*, Vol. 209, pp. 35-58.
- _____(2013), “Development Dynamics of Chinese Resource-Based Investment in Peru and Ecuador,”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55, No. 1, pp. 46-72.
- _____(2015), “The Limits to China’s Non-Interference Foreign Policy: Pro-State Interventionism and the Rescaling of Economic Governanc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9, No. 2, pp. 205-223.
- Gouley, Clotilde(2005), *Conflictos mineros, interculturalidad y políticas públicas: el caso de Las Bambas, provincias de Cotabambas y Grau, departamento de Apurímac*, Informe final, Centro Bartolomé de Las Casas, Cusco.
- Irwin, Amos, and Kevin P. Gallagher(2012), *Chinese Investment in Peru: A Comparative Analysis*, Discussion Paper No. 34, Working Group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the Americas, GDAE.
- _____(2013), “Chinese Mining in Latin America: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Journal of Environment Development*, Vol. 22, No. 2, pp. 207-234.
- Jenkins, Rhys, Enrique Dussel Peters, and Mauricio Mesquita Moreira(2008), “The Impact of China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orld Development*, Vol. 36, No. 2, pp. 235-253.
- Jiang Shixue(2006), “Recent Development of Sino-Latin American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Estudios Internacionales*, XXXVIII, Vol. 152, pp. 19-41.
- Kang, Jung-Won(2014), “Peruvian Mining Industry and Local Community Development: An Analysis of the Local Impact of Canon Minero,”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Vol. 18, No. 1, pp. 111-140.
- Kotschwar, Barbara, Theodore H. Moran, and Julia Muir(2011), “Do Chinese Mining Companies Exploit More?,” *Americas Quarterly*, Fall, <http://www.americasquarterly.org/do-chinese-mining-companies-exploit-more>
- _____(2012), “Chinese Investment in Latin American Resources: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Working Paper 12-3, Februar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Kuramoto, Juana(1999), *Las aglomeraciones productivas alrededor de la minería: El caso de minera Yanacocha S.A.*, Working Paper No. 27, Lima, Peru: GRADE.
- Long, Norman and Brian Roberts(1984), *Miners, Peasants and Entrepreneurs: Regional*

- Development in the Central Highlands of Peru*,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co Zaconetti, Jorge and Pedro Maldonado Santiago(2003), “Hierro Perú: una privatización anormal del estado peruano al estado china,” *Revista de la Facultad de Ciencias Económicas de la UNMSM*, Vol. 22, pp. 103-135.
- Muradian, Roldan, Joan Martinez-Alier, and Humberto Correa(2003), “International Capital Versus Local Population: The Environmental Conflict of the Tambogrande Mining Project, Peru,”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Vol. 16, pp. 775-792.
- Naváez, Benjamín N.(2016), “Becoming Sino-Peruvian: Post-Indenture Chinese in Nineteenth-Century Peru,”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9, No. 3, pp.
- Pahuamba, Argelia M., Ye Jianmu, and Abdoulaye Oury Bah(2015), “Latin America Development under Chinese Investment Hegemony,”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Vol. 1, No. 5, pp. 38-50.
- Ray, Rebecca et al.(2015), *China in Latin America: Lessons for South-South Coope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the Americas, CENIT; CIUP; GEGI; GDAE.
- Rosales, Osvaldo and Mikio Kuwayama(2012), *China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Building a strategic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Santiago.
- Sanborn, Cynthia A. and Alvaro Paredes(2015), *Getting it Right? Challenges to Prior Consultation in Peru*, Occasional Paper Series, February, Center for Social Responsibility in Mining (SMICSRM),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 Sanborn, Cynthia A. and Victoria Chonn(2015), *Chinese Investment in Peru’s Mining Industry: Blessing or Curse?*, Discussion Paper 2015-8, Working Group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the Americas, CENIT; CIUP; GEGI; GDAE.
- Seo, Ji-Hyun(2016), “‘Democratic Reform without Democracy’: Roots of Socio-Environmental Conflicts in Peru,”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Vol. 35, No. 2, pp. 79-112.
- Stier, Kenneth J.(2012), “Can Latin America Survive the Chinese Economic Juggernaut? China in Latin America,” Vol. 6, No. 11, June 5, available at <http://library.cqpress.com/cqresearcher/document.php?id=cqrglobal2012060500>
- Strauss, Julia C.(2012), “Framing and Claiming: Contemporary Globalization and ‘Going Out’ in China’s Rhetoric towards Latin America,” *The China Quarterly*, Vol. 209, pp. 134-156.
- Werner, Alejandro and Alejandro Santos(2015), *Peru: Staying the Course of Economic Succes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Wise, Carol(2012), “El dilema chino: estrategias de desarrollo económico emprendidas por Estados pequeños en Sudamérica,” *colomb.int*, No. 75, January/June, Bogotá.
- Wise, Carol, and Cintia Quiliconi(2007), “China’s Surge in Latin American Markets: Policy Challenges and Responses,” *Politics and Policy*, Vol. 35, No. 3, pp. 410-438.
- Yates, Julian S. and Karen Bakker(2014), “Debating the ‘Post-Neoliberal Turn’ in Latin America,”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38, No. 1, pp. 62-90.

Newspapers, Magazines, etc.

- Andina*(2015), “ECLAC: Peru to be South America’s Second Largest Economy in 2016,” 2015.12.17, <http://www.andina.com.pe/Ingles/noticia-eclac-peru-to-be-south-america-s-second-largest-economy-in-2016-589980.aspx?platform=hootsuite>
- BBC(2015), “How China is Raining on Glencore’s Parade?,” by Peter Shadbolt, 2015.09.11, <http://www.bbc.com/news/business-34208070>
- China-South Dialogue(2013), “Draft Case Study: Chinese Mining Company Shougang Hierro Peru,” by Hongxiang, 2013.05.24, <https://chinagoingout.wordpress.com/2013/05/24/draft-case-study-chinese-mining-company-shougang-hierro-peru/>
- CNN *Money*(2015), “China’s Big Chess Move Against the U.S.: Latin America,” by Patrick Gillespi, 2015.03.04, <http://money.cnn.com/2015/03/04/news/economy/china-latin-america-relations-united-states/>
- CSR-Asia(2005), “Chinese Investment Abroad: Shougang and Labour Protests in Peru,” by Stephen Frost, 2005.08.16, <http://csr-asia.com/csr-asia-weekly-news-detail.php?id=4446>
- El Comercio*(2014), “¿Qué significa la venta de Las Bambas para el Perú?,” 2014.04.14, http://elcomercio.pe/economia/peru/que-significa-venta-bambas-peru-noticia-1722749?ref=flujo_tags_184863&ft=nota_79&e=titulo
- _____(2014), “Las cinco principales inversiones de China en América Latina,” 2014.05.05, http://elcomercio.pe/economia/mundo/cinco-principales-inversiones-china-america-latina-noticia-1727209?ref=flujo_tags_184863&ft=nota_76&e=titulo
- _____(2015), “Apurímac, el futuro bastión de la producción de cobre nacional,” by Manuel Marticorena, 2015.06.23, <http://elcomercio.pe/economia/peru/apurimac-futuro-bastion-produccion-cobre-nacional-noticia-1820651>
- _____(2015), “Las Bambas: ¿Por qué se inició protesta contra proyecto minero?,” 2015.09.28, <http://elcomercio.pe/sociedad/apurimac/bambas-que-se-inicio-protesta-contra-proyecto-minero-noticia-1844495>
- _____(2015), “Keiko a Humala: Sus decisiones siguen afectando la economía,”

- 2015.09.29, http://elcomercio.pe/politica/actualidad/keiko-fujimori-ollanta-humala-sus-decisiones-siguen-afectando-economia-noticia-1844750?ref=flujo_tags_184863&ft=nota_41&e=titulo
- _____(2015), “Las Bambas: ministro del Interior manifiesta su respaldo a PNP,” 2015.09.30a, <http://elcomercio.pe/sociedad/apurimac/bambas-ministro-interior-manifiesta-su-respaldo-pnp-noticia-1844993>
- _____(2015), “El nuevo Sendero, por Cecilia Valenzuela,” 2015.09.30b, http://elcomercio.pe/politica/opinion/nuevo-sendero-cecilia-valenzuela-noticia-1844784?ref=flujo_tags_184863&ft=nota_31&e=titulo
- _____(2015), “Descontento hacia Las Bambas se gestó desde inicios de este año,” 2015.10.04, <http://elcomercio.pe/sociedad/apurimac/descontento-hacia-bambas-se-gesto-desde-inicios-este-ano-noticia-1845728>
- Gestión*(2014), “Las pobreza se incrementó en ocho regiones del Perú en el 2013,” 2014.05.02, <http://gestion.pe/economia/pobreza-se-incremento-ocho-regiones-peru-2013-2096134>
- _____(2016), “Comercio entre Perú y China crecerá 14% por la minería el 2017, estima EY,” 2016.05.25, <http://gestion.pe/economia/comercio-entre-peru-y-china-crecera-14-mineria-2017-estima-ey-2161595#comentarios>
- La República*(2015), “Trabajadores de minera Shougang en huelga indefinida en busca de mejores salarios,” 2015.09.21, <http://larepublica.pe/sociedad/705000-trabajadores-de-minera-shougang-en-huelga-indefinida-en-busca-de-mejores-salarios>
- _____(2015), “Perú será el segundo productor de cobre en el mundo en el 2016,” 2015.11.25, <http://larepublica.pe/impresia/economia/720976-peru-sera-el-2do-productor-de-cobre-en-el-mundo>
- _____(2016), “Un muerto y cuatro heridos en huelga contra Shougang,” 2016.05.26, <http://larepublica.pe/impresia/politica/2987-un-muerto-y-cuatro-heridos-en-huelga-contra-shougang>
- LA Times*(2010), “Is China Good for the Americas?,” by Eric Farnsworth, 2010.07.02, <http://articles.latimes.com/2010/jul/02/opinion/la-oe-farnsworth-china-latin-20100702>
- _____(2016), “Peru Has Copper. China Wants It. And Now Beto Chahuayllo is Dead,” by Jonathan Kaiman, 2016.02.25., <http://www.latimes.com/world/mexico-americas/la-fg-peru-china-mining-20160224-story.html>
- MINTRA, Modifican el D.S. N° 011-92-TR y crean el registro nacional de arbitros de negociaciones colectivas decreto supremo. Ministerio de Trabajo y Promoción del Empleo, Gobierno de Perú, http://www.mintra.gob.pe/archivos/file/SNIL/normas/2011-09-17_014-2011-TR_1717.pdf
- Newspim*(2014), “M&Aro Momjipkiun Jawongiup OGwang (Minmetals),” 2014.08.12, http://www.newspim.com/news/view/20140812000156?category_cd=011204

- New York Times*(2010), “Tensions over Chinese Mining Venture in Peru,” by Simon Romero, 2010.08.14, http://www.nytimes.com/2010/08/15/world/americas/15chinaperu.html?_r=2
- Oxford Business Group(2015), “The Report Peru 2015,” www.oxfordbusinessgroup.com
- Pulso*(2015), “Cobre alcanzará precio promedio más bajo en 2016: llegará a US\$ 2.4,” 2015.08.31, <http://www.pulso.cl/noticia/trader/2015/08/15-69613-9-cobre-alcanzara-su-precio-promedio-mas-bajo-en-2016-llegara-a-us24.shtml>
- Semanaeconómica*(2016), “Por qué el Perú no podrá crecer 6% como prometen los candidatos?,” by Anthony Suclupe, 2016.11.11, <http://semanaeconomica.com/article/economia/macroeconomia/173615-por-que-el-peru-no-podra-crecer-6-como-prometen-los-candidatos/>
- World Socialist Web Site(2015), “Conflictos sociales estallen en Perú luego de sangrienta confrontación mminera,” by Cesar Uco, 2015.12.09., <https://www.wsws.org/es/articles/2015/12/09/peru-d09.html>

Article Received: 2016. 09. 14.

Revised: 2016. 11. 08.

Accepted: 2016. 11. 08.